구역 공과

2021년 10월 17일

은사를 나누어주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기도

1.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눔

1. 당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 사모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학개

학개는 약 4개월에 걸쳐 여호와께서 주신 4번의 메시지를 기록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며 축복의 약속과 다윗 왕국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언한다. 학개는 각자 자기 집 짓기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영적 우선순위를 확립하도록 일깨운다.

신승교회

은사를 나누어주심

고린도전서 12장 7-12절 (15장, 197장)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가 지체의 각 부분으로 각각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음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을 깨닫고 은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7-10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9가지의 은사를 가르쳐주십니다.

첫째, 지혜의 은사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고린도전서 1, 2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임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모든 것이 믿어지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마르다가 믿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요11장),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넷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믿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눅5장), 병 고치는 은사는 영이 구원을 받고 심령이 살아난 증거로 육신의 병도 낳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먼저 살아나고 육체도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는 교회가 하나 되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고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책망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환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영적으로 성령과 사탄, 진리와 비진리, 영과 육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영적인 일을 바르게 분별합니다.

여덟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외국어를 하는 대인 방언과 짐승이나 식물과 같은 생명들과 대화하는 대물 방언, 가장 많이 주시는 영으로 기도하고 천사의 말로 하는 방언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15절에 대신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오직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고전 14:2,22).

아홉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아무도 알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 사람 이상의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고전14:27).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11, 12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특성과 사명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다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복음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말고 자신에게 합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